◇르뽀—포장마차 철거, 그 문제점을 찾아서

철거, 생존권 위협받는 '서민의 쉼터'

지난 6월, 서울시는 '포장마차 관리'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포장마차 강제철거를 단행하였다. 이는 곧 노점상들의 조직적 대응을 불러 일으켰고, 상황은 정부와 노점 상인간의 극심한 대립구도로 전개되었다.

본고는 그간의 상황과 현재의 강제 철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더불어 올바른 해결책을 찾고자 기획되었다.

〈편집자 註〉

새벽 6시.

저 동이 트기도 전 송연희(54)씨의 하루는 시작된다.

간밤의 피로를 그대로 짊어진 채 송씨는 새벽 6시 왕십리 중앙시장으로 무거운 발길을 옮긴다. 오늘, 퇴근길에 들릴 손님들의 안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3시간 정도 잠을 본 후 12시쯤이 되면 생계의 터전인 잠실에 도착한다. 간밤을 주차장옆 공터에서 보낸 손수레를 제자리에 세우고 술과 아침에 준비해온 음식을 정리하고 다듬다 보면 어느덧 오후 5시가 된다. 저녁놀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한두명의 손님이 찾아오고 붐비기 시작하더니, 퇴근시간인 8시경 부터는 하루 업무에 시달린 회사원들이 네타이를 축 늘어뜨린 채 삼삼오오로 몰려든다. 새벽부터 준비한 술과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기에 바쁜 송씨는 밤 12시, '수고하십시오'라는 마지막 손님의 인사말을 끝으로 빈병과 남은 음식을 치우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상계동 집에 도착하는 시각은 새벽 2시.

부인과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해 생계를 유지하는 송씨의 하루는 이렇게 반복된다. 청량리에서 포스가게를 운영하다 실패한 후 이제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된 두 아들과 어떻하든 삶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5년전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송씨는 하루 네 다섯 시간밖에 자지못하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늘 활달하게 자라난 두 아들을 떠 올리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한다.

철거반과의 몸싸움에서 다친 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작년 11월 그동안의 사월세방을 청산하고 상계동 시영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는 송씨는 "14평밖에 되지않는 조그만 아파트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훨나은 편이제. 여기서 포장마차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사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거던"이라고 말한다.

"단속만 없으면 그래도 네 식구 입풀이 삼아갈 수 있을텐디. 철거되면 몰래야 힘지 막막하기만 허당께. 뭐믄것도 없고, 힘도 없고 ……."

Ⅰ. '포장마차 관리' 지침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 서울시내의 음식물 및 주류판매 포장마차 1천8백여개를 6월말까지 전면 철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지난 6월 6일 '포장마차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그달 하순부터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것임을 발표했다. 이번 '포장마차 관리'지침은 6월 20일부터 80개가와 부서진 소주병이 너절하게 늘려 있고 파는 음식을 집어던지며 철거에 대항하는 노점상들과 단속반원들과의 대치는 때마침 내리는 빗속에서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난 8월 19일 밤 서울시와 경찰은 서울시내 43개 지점에 2백80개소 3천5백여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포장마차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과정에서 92대의 포장마차가 파손·압수 되었고 노점상 30여명이 부상당하고 6명이 연행 되었다.

지난 8월 4일 서울시, 경노련, 경실련등의 시민단체가 모여 가진 간담회 후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하더니 이번 단속으로 상황은 다시 급박한 대립으로 옮겨졌다. 그날 밤 11시 송파구에서도 포장마차 강제철거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과 물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며 노점상 탄압은 곧 민중생존권의 탄압임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권력을 투입하는 물리력을 써 가면서까지 포장마차를 철거시키려는 관의 입장은 과연 어떠한가? 그것을 알아 보기 위해 송파 구청을 찾았다.

Ⅱ. 정부의 입장

노점상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관리와 가로정비계 20명 남짓한 직원들의 분주한 모습은 급박해진 노점상 단속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포장마차를 단 속 떡볶기, 오뎅, 국수 등 조리식품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포장마차에서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30m 이하의 좁은이들은 조리 또는 비조리 완제품을 불문하고 포장마차에서 장사할 수 없으며, 주택 및 전답 소유자의 포장마차 영업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을 포장마차 접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으로 나눠 접대금지구역에선 포장마차 영업을 일체 불허하고 상대금지구역에서만 일용잡화제품과 비조리제품의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Ⅰ. 8·19 포장마차 단속상황

"비켜!" '물러서!' '끌어내려' 우당탕탕 ……

철거반원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포장마차 앞대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쏟아진 음식찌꺼기와 깨진 유리조각 등이 어지러이 늘려 있고 파는 음식을 집어던지며 철거에 대항하는 노점상들과 단속반원들과의 대치는 때마침 내리는 빗속에서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난 8월 19일 밤 서울시와 경찰은 서울시내 43개 지점에 2백80개소 3천5백여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포장마차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과정에서 92대의 포장마차가 파손·압수 되었고 노점상 30여명이 부상당하고 6명이 연행 되었다.

지난 8월 4일 서울시, 경노련, 경실련등의 시민단체가 모여 가진 간담회 후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하더니 이번 단속으로 상황은 다시 급박한 대립으로 옮겨졌다. 그날 밤 11시 송파구에서도 포장마차 강제철거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과 물리력으로 인해 18대의 손수레가 파손·압수되고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비가 와서 많은 노점상들이 장사를 나가지 않아 부상자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철거반원들은 우성아파트 근처에 세워둔 빈 포장마차까지 무차별로 부수고 압수했으며 성남 주변 노점상들은 신나까지 뿌리는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나도현(24·송파지역 노점상연합 사무국장)씨는 이번 강제철거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과 물리력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번 철거에 따른 보호 대책으로써 ▲생업자금 5백만원 융자 ▲품목변경등과 전업유도 ▲수서가·양지역 임대아파트 지정상가 입주(91개)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대화로써 논의해볼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에 "안내문 등을 통해 여러차례 시도 했으나 반응이 없다. 타협점을 찾기란 힘들것 같다"라고 대답해 사업자 대화에 나도현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포장마차 철거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강제철거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도로기능을 마비시켜 시민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는 단속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포장마차는 그 영업시간이 대부분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이 시간대의 '영업이 도로교통 마비나 시민통행 불편의 결정적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러한 문제는 규격화와 자율정비로 최소화 시킬 수 있죠. 위생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협력이 따른다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포장마차가 청소년 범죄와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오히려 입시위주의 교육과 노래방록카페등 상업·퇴폐문화가 주범이 아닐까요. 포장마차의 주 고객은 도시 샐러리맨이지 청소년은 아니거든요"

더불어 서울시의 노점상 대책도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 비난한다. 즉 생업자금 5백만원 융자란 현 경제하에서는 외마를 가질 수 없으며 수서·가양지역 임대아파트 지하상가 입주도 91개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품목변경 등과 전업유도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품목변경을 할 경우 타 노점상과의 형평가 유발할 수 있으며 전업의 경우, 그 이전에 고용안정과 노동임금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장마차가 타 노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를 축적한다거나 넉넉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기업형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 그런 부류가 있기도 한데 이런 부류들은 우리들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시당국이 포장마차만을 분리해서 철거 시키는 것과 포장마차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전국 노점상연합의 힘을 와해시키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한다.

Ⅴ. 노점상 발생원인에 따른 대책

노점상연합회와 시당국과의 논리가 상당부분 어긋나는 이유는 노점상의 발생원인 규명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총액임금제등의 저임금 정책 때문에 공장을 나온 노동자들이 임금여서 및 노동운동 탄압등으로 자본주의 경제질서 속에서 이탈된 후 대부분이 노점상으로 변했다. 이와 맞물려 진행된 농업부문의 해체와 도시로 유입된 농민들이 노동능력의 저급성과 자기자본의 부재 등으로 인해 노점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노점상 인구의 70~80%이상이 농촌 출신이라는 점과 1년에 50만명 정도의 농민이 도시로 유입된다는 점등을 볼때 노점상이 단지 개인적 이유로 발생된다고 보기엔 그 설득력이 지극히 낮다.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그 발생원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와 대책은 노점상이 단지 개인적 문제로 발생한다는 좁은 시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 필수 없으며 미흡할 수 밖에 없다.

Ⅵ. 해결방안

노점상 단속은 도시노점상이 형성된 후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다. 하지만 그때의 단속은 부분적이었고 노점상측의 대응도 개별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하던 것이 80년 들어 아세안 게임, 88올림픽, IBRD총회 등 국제적 행사를 전으면서 도시환경미화라는 명분하에 본격화 되었다. 거기에 맞춰 노점상들의 대응도 차츰 조직화되어 갔다.

올해 노점상과 정부와의 대립은 그간 있었던 어떠한 상황보다 극심해 졌다. 그만큼 정부의 철거정책이 강경화 되었으며, 그것에 맞선 노점상들의 자치단체인 전국노점상연합회의 조직력이 탄탄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심한 대립구도 속에서 무엇을 문제점으로 찾아낼 것이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퇴근후엔 항상 포장마차를 뜹니다. 하루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를 풀 장소가 필요하죠. 그럴땐 포장마차가 가장 적격입니다. 이번 포장마차 단속을 볼때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단속 근거로 내세운것 중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통행상의 다소 불편한 점 등은 저 자신도 가끔씩 느껴왔던 점들 입니다. 그렇지만 대화에 의한 개선이 아닌 강제철거에 의한 해결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장마차가 철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한 회사원의 말처럼 정부의 강거대책은 법치만을 내세운 성급한 행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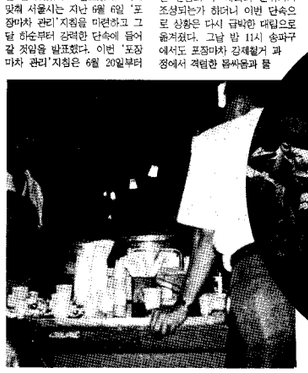
"우리 노점상 지체해에선 밤새부터 위생문제를 위시한 가격 문제, 청소년 선도문제, 노점상의 기업화 문제 등을 해결해 보자는 의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철거를 해야 한다니 어디 그 문제를 해결할 업무가 나야죠" 김일현(45·송파지역 노점상연합 회장)씨는 이렇게 안타까움을 풀어 놓는다.

우리나라와 사회여건이 다른 외국의 예이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시유지에 상가주도 및 전기시설 등을 마련해 노점상을 집단이주시키고 엄격한 위생 관리를 하고 있다한다.

단속에 의한 노점상과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기 보다는 합법화에 의한 노점상의 양성화 정책이 올바른 대책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선 그것의 토대가 될 공동조사와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노점상 없는 세상이야 말로 참말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제" 송씨의 웃는 모습이 서글퍼 보였다.

특별취재반
안상모 記者, 김중석 記者



▲ 송파지역 노점상 연합회 사무국장 나도현씨를 만나

포장마차 철거 저지 투쟁은 노점상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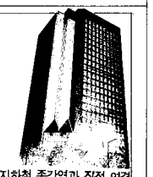
▲6월2일 왕십리 포장마차촌에서 포장마차에서

노점상 발생원인에 따른 근본적 보완책 필요
공개조사, 공개토론회 통한 여론 수렴 선결되야

영풍문고

지성인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가꿀
창조적인 문화공간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2학기 대학교재 및 원서교재는 물론, 모든 국내서적을
완벽하게 갖추고 대학인 여러분을 정성껏 모십니다.



* 지하철 종각역과 직접 연결

● 대표전화 : 399 - 5600
● 도서안내 : 399 - 5678

전시관 대관안내
클라식홀장 그랜드 볼룸
문의 : 399 - 5669

초대형 서점

■음 반 점 ■문 구 점 ■컴퓨터 플라자 ■전시관